

협회소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환경처가 지난 5월 27일 입법예고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6월 11일 농림수산부와 환경처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본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지난 1월 건설부에서 공고한 바 있는 가변형 축사 표준설계도에서 축사면적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톱밥발효상의 면적을 축사면적의 20% 이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하며 재활용신고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는 축산농가의 직영농지 또는 인근 경종농가가 재활용할 경우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축산업자가 축산분뇨 불출대장을 직접 기록·보관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등 개정기준에 대한 적용시기를 '96년 1월 1일부터로 한 것에 대해 기존법에 의해 최근 분뇨처리시설을 한 법 준수 양축농가에게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연구와 모델제시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기준의 적용은 '98년 1월 1일부터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만약 이번 입법예고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본회의 의견이 수렴, 반영된다면 톱밥발효상의 면적은 축사면적의 20% 이상, 개정기준의 적용은 3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내에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면적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방류수의 수질수준도 대폭 높여야 한다.

본회, 제1차 방역대책추진위원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5월 24일 본회 소회의실에서 노영한 전무 주제로 새로 위촉된 방역대책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방역대책추진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방역대책추진위는 위원장에 백우현 씨(한국돼지인공수정센터 대표), 부위원장에 최찬영 씨(신진가축약품 대표)를 각각 선출하고 방역대책추진위원회내에 종돈장위생지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종돈장위생지도소위는 각도별로 설치되며, 위원으로 각도의 수의과대학 돼지질병담당교수, 도축산과장, 가

축위생시험소장 등을 위촉키로 했다.

방역대책추진위의 향후 사업계획과 일정은 위원장단에서 정하기로 했고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20명으로 늘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대책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방대위는 앞으로 양돈장의 효율적인 돼지질병 방역을 위한 정책개발과 중돈장에 대한 위생지도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돈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의 가검물을 채취, 질병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질병박멸을 위한 지도를 할 계획이다.

본회, 임원·지부장 수첩 제작·배부

본회는 지난 6월초 임원·지부장간의 긴밀한 상호연락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94 임원·지부장 수첩을 제작·배부했다.

'94 임원·지부장 수첩에는 본회 임원, 지부장, 직원의 사진, 주소, 전화번호와 핸드폰 및 무선호출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2검정소, 검정돈 혈청검사 실시

본회 제2검정소(소장: 김형균)는 지난 3월, 15개 농장 115두의 검정돈에 대한 혈청검사를 가축위생연구소에 의뢰, 지난 5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번 검사는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돼지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등 3종의 질병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제2검정소는 이번 검사결과 질병방어능력이 떨어지는 검정돈에 대해서는 백신을 주사하고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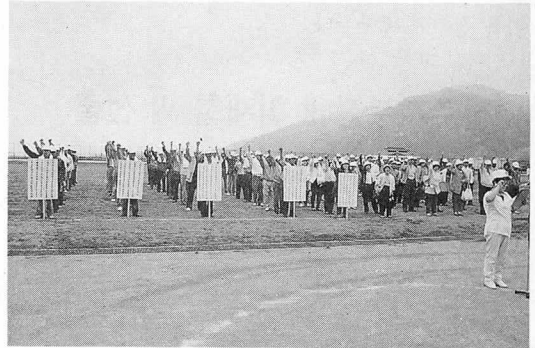
울산지부, 「UR타결 내용 및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울산지부(지부장: 유재환)는 지난 5월 20일 울산지

부의 수출단지 구성과 영농조합 설립 및 지부사무실 확장 이전 기념식과 함께 「UR타결 내용 및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부 회원, 지역 양돈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농림수산부 원광식 축산국장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부산·김해지부, 축산폐수법 시행령 개정 반대 쫓기대회 개최



부산·김해지부(지부장: 김위진)는 지난 5월 25일 김해소재 가야랜드 운동장에서 본회 박재근 고문, 최상백 부회장, 경남북도내 지부장 및 지부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총 쫓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쫓기대회에 참석한 양축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UR협상 타결에 따른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농촌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부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법률을 대폭 강화한 것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정부에 법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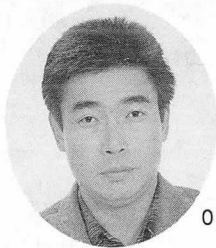
또 「환경보전 관련법규에 따라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인허가 및 설치를 설계시공업체들이 맡고 있으나 이들에게 사후 책임을 의무화하지 않아 축산농가들만 불이

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축농가들은 정부의 환경오염방지 노력에 적극 지지를 보내지만 양축농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정부에 대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축산분뇨를 폐수가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과 양축농가가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5가지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했다.

상주지부장에 이재철 씨 선출



이재철 지부장

상주지부는 지난 5월 26일 지부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정호 지부장 후임에 이재철 씨(41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전임 이정호 지부장이 건강문제로 사의를 포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지부장 선출에서 신임 지부장이 된 이재철 지부장은 현재 상주시 신봉동에서 1,000두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동지부는 또한 임원진도 개편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부지부장 : 김영업, 황효연
- ▲총무 : 김웅기
- ▲감사 : 전진용
- ▲운영위원 : 임성규, 박태찬, 정웅천, 정정수, 우시영, 황세영, 김현근

업 · 회 · 단 · 신

공주지부, 사무실 이전

공주지부(지부장 : 조민동)는 지난 6월 14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공주지부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충남 공주시 산성동 192-7
- ▲전화번호 : (0416)857-7722
- ▲FAX : (0416)857-9393

영천지부, 사무실 이전

영천지부(지부장 : 김성곤)는 지난 6월 8일 아래 주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는 변동없다.

- ▲주소 : 경북 영천시 야사동 333-1

서산 · 태안지부, FAX 설치

서산 · 태안지부(지부장 : 이태무)는 지난 5월말 지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FAX를 설치했다.

FAX번호는 다음과 같다.

- ▲FAX : (0455)667-5533

